

# 상승세 이어갔던 조선株 ‘숨고르기’… 하반기 반등 기대

개별종목도 고점 대비 하락  
올해 상반기 수주 호황 기록  
향후 주가 견조한 흐름 전망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면서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이어왔던 조선주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역대급 신규수주에 강달러상황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조선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공업 ETF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KBSTAR 200중공업 ETF'와 'TIGER 200 중공업'은 각각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각각 9.89%, 9.69%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선해양 등 개별종목으로도 지난달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모습이 다. 대표 조선주인 대우조선해양은 이



LNG 선적작업 모습.

/대우조선해양

날 1200원(6.33%) 오른 2만15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여타 종목은 강보합세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말까지 장중 한때 2만43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4일에는 1만8200원까지 떨어졌다.

현대미포조선 역시 지난달 25일에 11만75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날 10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중공업도 지난달 말 15만1000원까지 올랐지만 이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날까

지 추세가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다만 최근 조선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수주 호황을 기록하면서 향후 주가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KB증권(8만6000원→10만원), 신한금융투자(9만7000원→14만원) 등이 목표가를 두 자리수 인상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전세계 PC선 건조 1등 조선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LPG운반선.

업체로, 경쟁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목표주가를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14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상황 역시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체는 선박 건조대금을 달러로 받는데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대비 2.8원 오른 1393.7원에 장을

마쳤다.

또한 하반기 들어 조선주가 급등함에 따라 주가가 일시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조선주의 약세에 대해 “주가가 크게 영향을 끼칠 특별한 이슈보다는, 증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 받는 상황에서 최근 가장 크게 오른 조선주가 조정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초단납기 프로세스’ 강점… 북미 등 진출 발판

### IPO 간담회

#### 모델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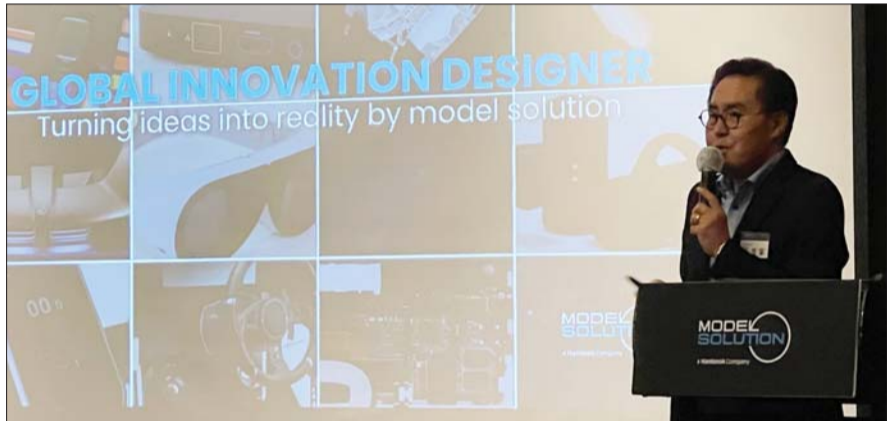
납기기한, 경쟁사비 2배 이상 빨라  
영업익 32% 증가… 견조한 성장세

고부가가치 프로토타입 제작 기업 모델솔루션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계획과 비전에 대해 밝혔다.

우병일 모델솔루션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경영성과를 고객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에서 냉철히 평가받아서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모델솔루션은 지난 1993년에 설립해 자동차와 항공우주, IT·통신, 의료기기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디자인·기능성·사출성형 프로토타입의 제조 및 소량 양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델솔루션은 프로토타입 산업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시장



우병일 모델솔루션 대표가 15일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조사 기관 TMR에 따르면 프로토타입 글로벌 시장 2021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1%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델솔루션은 보유한 컴퓨터 수치제어 가공 기술, 후공정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규 제품 개발 주기가 짧아진만큼 최대 7영업일 내에 고객사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초단납기 프로세스’를 강점으로 꼽았다. 우 대표는 “통상적으로 제품을 대량으로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자체적인 CMF와 같은 공정에서 자체적인 인력과 설비가 없다 보니 개발 리드타임에 손해를 입는다”며

“모델솔루션은 데이터분석부터 가공단계까지 시스템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 납기 기한을 경쟁사 대비 2배 이상 빠르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89억원으로 같은 기간 32% 가량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322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국내는 삼성전자·LG·현대차, 해외에서는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최상위 기업 등 탄탄한 고객군을 바탕으로 매출 실적에 안정성을 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석 기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주환원 미흡 등 원인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세미나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은 주주환원 미흡과 산업 구조 측면 등에서 기인하는 우리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기업 지배구조 취약성 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이어지는 충격에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든 약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며 “모두 인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45개국 3만2000여개의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 취약성, 주주환원 미흡, 회계 불투명성, 단기 투자 성향 및 기관투자자 기반 부족, 지정학적 위험 등이 있다”며 “특히 주주환원 미흡,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시점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나며, 의료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 한국투자증권, 인마크글로벌프라임리츠 상장 주관

### 인마크리츠운용의 첫 상장 리츠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프라임오피스에 투자하는 ‘인마크글로벌프라임리츠’의 상장대표주관사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인마크글로벌프라임리츠는 호주계 부동산투자법인인 인마크글로벌(INM ARK Global)이 설립한 국내 법인인 인마크리츠운용의 첫 상장 리츠다. 이번 주관사 선정에는 한국투자증권의 다양한

국내외 리츠 상장 주관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상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리츠, 2020년 ESR퀀탈스퀘어리츠, 2021년 SK리츠 등을 연이어 상장 주관하며 독보적인 트랙레코드를 쌓아왔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부터 프리 IPO, IR컨설팅 등 신규 상장을 위한 전 과정에서 전문 역량을 보유한 증권사이다. 대표주관사를 함께 맡은 NH투자증

권 역시 코람코에너지리츠 등을 상장 주관하며 리츠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마크글로벌프라임리츠의 투자 대상은 스페인 마드리드 ING은행 본사 사옥인 헬리오스(Helios) 빌딩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연방 검찰청이 사용 중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빌딩이다.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 /이영석 기자

## 금호건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단독 수주

총 공사금액 2245억

금호건설이 한국서부발전에서 발주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는 노후화된 충남 태안군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500MW급 천연가스 발전소가 새롭게 지어지게 된다. 총 공사금액 2245억원이다.

금호건설은 이번 대규모 플랜트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게 됐다. 내달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금호건설

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의 천연가스 분야의 다양한 공사 수행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앞서 수주한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공사관리를 일원화해 성공적으로 준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